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가꾸기 <1> “천천히 함께 가는” 제주 구좌읍 세화리 마을

[이상길]

“신뢰가 동력...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해결합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세화마을의 마을회의와 주민활동. 주민 주도로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주민사랑방 '질그랭이거점센터'

카페·숙박 갖추고 워케이션 각광

마을협동조합 중심 돌돌 뭉쳐

설계~조성까지 주민들 TF 참여

튼튼한 주민자치 산실 마을회

마을 살림 하나하나 총의 모아

농어촌 지역개발, 또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인구 감소, 활력 저하라는 악순환에 처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예전에는 행정 주도로 시설물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진행됐다면, 요즘엔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행정보다 주민이 주도하고, 결과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성을 살려나가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과 방문객이 즐기는 질그랭이거점센터



질그랭이거점센터. 주민에게는 일상 공간, 방문객에게는 편하게 머무는 마을의 거점공간이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35km에 위치한 구좌읍 소재지 마을이다. 여섯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며, 인구는 2021년 10월 기준 2205명이다. 마을 주변으로 다랑쉬오름 같은 아기자기한 오름이 산재하고, 윤슬 반짝이는 쪽빛 제주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다. 구좌읍은 전국 당근 유통량의 65% 정도를 점유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이고, 감자도 많이 난다.

하지만 이곳도 청장년층의 이탈농, 고령화로 공동체가 약화되고 마을의 활력이 떨어지는 여느 농어촌의 문제를 비켜갈 수 없었다. 여기에 귀농귀촌 이주민 유입으로 원주민과 이주민간 관계 문제가 대두됐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적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예전처럼 내 집, 네 집 가리지 않고 마을 일로 여기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마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에서 불편하거나, 아쉽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논의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선도지구)을 신청, 2015년 9월에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2년까지 7년간. 사업은 제주시의 위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시행했다.

사업의 컨셉은 “당신이 즐겨 찾는 질그랭이 구좌”로 잡았다.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구좌 중심지에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에 재미요소를 도입, 지역 매력도를 올리고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사업의 중심에는 ‘질그랭이 거점센터’가 있다. 거점센터는 세화리 종합복지타운을 증개축한 건물로, 주민활동과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질그랭이’는 ‘지긋이’의 제주어다. 지역 주민에게는 일상공간으로 함께 쉬고 누리며 채우는 거점, 방문객에게는 편하게 머물며 다시 찾아오는 지역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다.



2층에는 '카페 477+'가 있는데, 477이란 숫자는 마을협동조합에 참여한 477명의 주민을 뜻한다.



세화마을이 운영하는 구좌주민여행사. 세화 야밤투어, 해녀투어, 발담투어, 오름투어, 마을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 1층에는 세화리 사무소, 마을협동조합 사무실, 구좌주민여행사 사무실이 있다. 2층에는 '카페 477+'가 있는데, 477이란 숫자는 마을협동조합에 참여한 477명의 주민을 뜻한다. 이곳에서는 커피는 물론 구좌 특산품인 당근을 활용한 당근주스와 케이크, 굴을 활용한 음료와 가공품, 감자빵 등 다양한 로컬푸드를 판매한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 칸에 '제로웨이스트' 공간을 마련해 친환경 제품도 취급한다.

3층은 공유오피스로 디지털 노마드존과 세미나실이 있다. 4층은 숙박시설인 '세화 밖 거리'로, 최근 트렌드인 '워케이션'(관광지에서 일을 하고, 업무 시간 외에는 여가를 즐기는 것) 바람을 타고 각광 받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구 면사무소 공간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아지트를 조성했고, 기존 노인회관을 리모델링, 어르신 생활홈도 만들었다.

마을사업의 중심 세화마을협동조합

질그랭이 거점센터 운영을 비롯한 마을사업의 중심에는 공동체 법인인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있다. 2019년 마을주민 477명이 조합원으로 참여, 설립한 세화마을협동조합은 마을협동조합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다. 현재 조합원은 494명으로 늘었다.

“빨리 가려면 혼자,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되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 마을 향약을 정비하고 정관을 준비 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느낄 수는 있어도, 주민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래도록 주민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다.

세화마을협동조합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질그랭이 거점 조성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건축, 운영, 인테리어 조성 등 3개의 TF팀을 운영했다. 이를테면 설계 당시부터 건축에 종사하는 주민, 카페 구조를 잘 아는 주민들이 TF로 참여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는 실내장식을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식이다. 카페에 걸린 그림도 마을 어린이들이 그린 것이다.

세화마을협동조합은 단기적으로 주민 일자리와 공동소득 창출을 목표로 마을 경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경제 분야는 물론 주민복지(돌봄), 교육, 안전, 정주생활 등 세화리 마을 전체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이다.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구좌주민여행사’는 제주관광공사의 주민주도 관광 활성화 사업인 ‘삼촌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마을여행사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화 야밤투어, 해녀투어, 밭담투어, 오름투어, 마을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화마을협동조합은 또 5월13일부터 주민주도형 플리마켓인 ‘구좌로 모모장’을 개장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리는 모모장은 구좌읍 주민, 소상공인, 마을회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세화마을협동조합은 마을가꾸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 세화항 어촌뉴딜 300(해양수산부), 국민체육센터 건립(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도 준비하고 있다.

세화마을협동조합은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1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듬해 2021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 효과를 보면, 방문객 수가 2020년 6천여 명에서 2022년 6만여 명으로 10배, 카페 숙박 투어 로컬푸드 등 매출이 372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10배, 일자리는 3명에서 7명으로 2배 증가했다. 직원 수는 정직원 6명, 계약직 1명인데, 세화마을 청년과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



질그랭이센터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힘, 세화리 마을회

세화마을협동조합이 마을사업을 운영한다면, 세화마을협동조합을 탄생시키고, 주민참여 마을사업을 가능하게 한 든든한 배경에는 세화리마을회가 있다.

보통 행정에서는 시군, 읍면동까지 주민자치의 범위로 보아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리 단위로 조직된 마을회가 읍면동보다 탄탄한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세화리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질그랭이센터 1층의 '세화리사무소'가 세화리 마을회의 사무실이다.

세화리 마을회는 세화리 자치기구이자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장(마을회장)을 대표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축산계장, 어촌계장, 수리계장과 같은 자생단체 대표들과 각 자연마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개발위원장, 감사, 자문위원회, 마을사업추진위원회가 있다.

마을회는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의 1년 살림을 승인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각 자생단체들은 마을총회에서 각자의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마을회장인 이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마을회의 살림살이는 마을 제사, 단합대회, 경로잔치, 마을정비, 축제 등 마을의 대소사와 자치활동, 마을 공동자원 이용 등을 포괄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세화마을협동조합 설립 등 마을사업도 마을회의 토의와 승인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행정과 컨설팅 업체, 소수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총의를 모아 주민의 참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농어촌 개발은 주민참여, 상향식 추진이 필수다. 그리고 이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역의 자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리 단위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가 강력하게 구현되는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세화리 마을사업은 시사점이 크다.

◆ 부지성 세화리 이장

“마을사업은 주민 소통과 참여가 핵심”



부지성 세화리 이장(세화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2015년부터 이장을 맡아 마을사업의 중심에 있는 이다. 마을 청년회부터 마을활동을 해온 그는 당근과 감자 농사를 짓는 구좌 토박이 농민이기도 하다.

그는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아무 것도 없어서 오히려 마을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었다"고 했다.

부 이장은 시종일관 주민주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사업을 강조했다. 세화마을협동조합 구성에 주민을 조합원으로 대거 참여시킨 것도, 질그랭이 센터를 조성할 때 주민 TF팀을 가동한 것도 그래서다.

그는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큰 꿈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필요에 따라,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다른 마을과 비교하고 처음부터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주객이 전도 된다"고 말했다. "마을사업은 시설 같은데 치중하면 그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우리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특히 그는 마을사업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총의로 사업을 시작하고 주민들이 믿고 기다려 줄 만큼 신뢰가 있어야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해 사업에 1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주민들이 믿고 힘을 실어준 덕에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세화리 마을회와 세화마을협동조합을 통해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 참여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신뢰가 세화리 마을사업을 끌어가는 동력이다.

부 이장은 "우리 마을은 긴 호흡으로 지역의 인재와 협동조직을 길러내고, 세화리 주민-공동체-협동조합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마을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